

# 10월 국감 최대 이슈는 오염수 방류·쌀 생산 과잉 대책

### 국회입법조사처 ‘국정감사 이슈’ 발간... 34개 중점 과제 제시

### 정부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등 시행령 아닌 법 개정 검토 촉구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전남지역의 최대 현안 문제 중 하나인 쌀 생산 과잉 등이 오는 10월께로 예정된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또 허술한 잼버리 준비와 운영으로 불거진 국가재난대응 지휘체계, 형사미성년자 연령조정, 의사 간호사 등 지역별 분쟁, 디지털 성범죄 등이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국감을 위해 전체 579개 자료 중 34개의 중점 과제를 추렸다.

입법조사처는 2009년부터 매년 보고서 발간을 통해 국감 대상이 될 분야별 정책 이슈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왔다. 2015년부터는 전년도 국감에서 지적된 사안들이 제대로 시정됐는지 여부를 검토한 내용도 포함해왔다.

기획재정위원회 주요 국감 주제로는 재정준칙 도입 등 국가 재정건전화,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방안도 주요 경제 이슈로 선정됐다. 조사처는 “21대 국회에서 마련된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법안은 사후적 제재에 치우쳐있다고 보고서를 통해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표제도 활용, 모니터링 협조체계 강화, 신고 포상금제도 활성화 등의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식량안보와 쌀 생산 과잉 억제를 위해 윤석열 정부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분질미(가루쌀) 육성을 위해 민간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는 가루쌀 육성을 표방하며 생산부터 유통까지 관여하고 있는데, 국회입법조사처는 타 품목과의 형평이나 가루쌀의 시장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정부가 내세우는 ‘담대한 구상’보다 능동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며, ‘강대강’ 정책뿐 아니라 다각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이에 따라 한중 관계와 경제안보 논의의 쟁점 등이 국감에서 집중 거론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 주요 경제 이슈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강화 등을 제시했고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방안, 촉법소년 연령 조정, 중앙선관위위원장 상시직 전환,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이원화의 문제점 등을 국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조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 및 입법 침해 여지가 있다며 법 개정 방식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현재와 향후 고려사항, 유럽 디지털 시장법 시행에 따른 우리의 대응, 디지털 경제에서 기업결합 쟁점, 다크패턴 규제 방향과 소비자보호 등을 주요 국감 이슈로 다뤘다.

한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피감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이슈로는 포털뉴스 공정성 확보와 미디어플랫폼 여치별 개선 등이 제시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손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원칙’·‘정신’ 채택...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

### 김태효 “나토처럼 갈 순 없을 것”

### 한미·한일 양자회담도 개최

한국과 미국, 일본이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을 규정하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뿐 아니라 협력 비전 등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 문건도 채택할 예정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7일 오후 울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 결과로 2개 문건을 채택하기로 확정했고, 추가로 1개를 더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며 2개 결과문서 제목과 의미를 먼저 공개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주요 테마별로 향후 한미일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을 담은 문서라면,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3국 협력의 비전과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이라는 게 김 차장 설명이다.

‘원칙’에서 3국 정상은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한반도, 아세안, 태평양 도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원칙을 천명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규범, 첨단기술, 기후변화, 비확산 같은 글로벌 이슈에도 공동 대응한다는 입장을 포함 예정이다.

‘정신’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단독으로 열리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의 주요 결과가 담긴다. 공동의 비전을 담은 구체적인 협의체 창설과 확장역

제 및 연합훈련, 경제협력, 경제안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김 차장은 “제목이 ‘스피릿’으로 표현될 만큼 3국 협력의 비전과 실천 의지를 담을 예정”이라며 “3국 정상은 복합 위기 속 한미일 협력의 필연성에 공감하고 3국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천명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나머지 1건의 결과 문서에 대해서는 아직 3국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김 차장은 “문서의 명칭과 내용에서 보듯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3국 협력 체제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하는 의미를 가진다”며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안보, 경제협력이 한미일 3자 차원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한일, 오염수 방류 후속 조치 실무협의 마무리

### 국무1차장 “협의 결과 곧 발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관련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한일간 실무 기술협회의 마무리됐다.

양측은 최종 검토와 문안 정리를 거쳐 곧 협의의 결과를 일방에 공개할 방침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일본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실무협의는 어제(16일) 화상회의에서 모두 마무리됐다”며 “협의 결과는 양측 추가 검토와 정리를 거친 후 종합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이 오염수 방류 관련 기술적 사안에 대해 취하고 있는 입장을 추가로 교환했고, 진지하게 논의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측은 오염수 처분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모니터링 체제하에 높은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며 “양측은 이를 위해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한일은 지난달 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요구한 사항 등의 실현 가능성과 실행 방안을 논의해 왔다.

당시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방류 점검 과정 한국 전문가 참여 ▲방류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공유 ▲방사성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시 즉각 방류 중단 및 해당 사실 공유 등을 요구했다.

협의에서는 우리 정부가 지난달 7일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측 검토를 완료하면서 도출한 다핵종제거설비(ALPS) 점검 주기 단축, 방사성 핵종 측정 대상 추가 등 4가지 권고 사항의 시행 방안도 논의됐다.

한일 대표단은 지난달 25일 일본에서 만나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날 들어서는 7일과 전날 두 차례에 걸쳐 화상 회의가 진행됐다.

박 차장은 “협의를 긍정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과 관련, “일본과의 양자 협의 단계에서 매듭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IAEA 측만 협의가 끝나고 나면 그 부분도 다 클리어(해결)가 되지 않을까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윤 대통령 지지율 38%... 2주만에 3%p 올라

### NBS... 76% “잼버리 성과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엠베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8%, ‘잘못하고 있다’는

54%로 각각 집계됐다.

직전인 2주 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는 3%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는 그대로였다.

윤 대통령이 가장 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결단력이 있음’이 18%로 가장 높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8%), ‘일관성이 있고 신뢰가 감’ (7%) 등 순이었다. ‘잘하는 부분 없음’은 47%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23%, 정의당 6%, 모름·무응답은 35%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2%p 올랐고 민주당은 변동이 없었다.

세만금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의 개최 및 운영 성과와 관련해서는 ‘성과가 없었다’는 응답이 76%로 ‘성과가 있었다’ (19%)보다 훨씬 높았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7.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광주광역시교육청**

“언제나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교권보호지원센터**  
 (온라인 상담신청) <http://forteacher.gen.go.kr>  
 (대표번호) 1644-9575